

2026년 신년사

2026. 1. 2.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입니다.

적토마의 힘찬 기운이,

우리 일터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견인할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으며,

96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국외점포 총자산 400억 달러,
세전이익 4억 달러를 달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 지원을 개시하며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제가 없었음에도,
국내외 각지에서 애써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궈낸 결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성과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쟁 금융기관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구조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환경에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의 운명을 건 과제로 삼고
치열한 투자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전통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가 겹치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산업은행의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우리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인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유망 산업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강화하여
차세대 국가 대표기업 육성에도
정성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석유화학 등의 전통 주력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동반자가 됩시다.

다음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만

우리 산업은행의 생존 기반이 확고해지고,
기업들에게도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 확충 등 자산·부채의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량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업구조 재편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투자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수익성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정책금융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초체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이 각자의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바로 회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분석하고 토론하며
의사결정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정부, 민간 등 외부와의 공조는 물론
부문, 부서, 팀 등
내부의 원활한 소통도 필수적입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우리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과 산업은행의 미래가 그려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량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임직원 여러분

자전거로 오르막길을 넘어지지 않고 오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작은 흔들림에도 목표를 향하는 방향성과
숨이 차올라도 발을 멈추지 않는 추진력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이라는
우리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미래 2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성이라는 거센 맞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역동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이 오르막길을 힘차게 올라갑시다.

*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끈기와 추진력을 의미 (원나라 시기의 연극 여춘당(麗春堂)에서 유래)

우리의 멈춤 없는 전진만이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도약의 2026년,
서로를 믿고 협력해서 산업은행의 역사를
다시 한번 힘차게 써 내려갑시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
회 장 박 상 진